

믿음의 뿌리

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.

칠판에는 ‘뿌리’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.

“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.

또 저는 전주 이씨 47대손이구요.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

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.

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.

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.

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.”

지난 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

그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.

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막 끝내고 이어서 나오는 어린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지금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 어린이는 고아원에 사는,

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.

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.

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에 섰습니다.

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.

“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.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.

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.

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. 사랑도 아주 많구요.”

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

출처 - 예화 company / 한순진(생명의 삶 2002년 2월2일)

☺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